

## 광주·전남 관광문화포털 ‘남도코리아(南道코리아)’의 문화소 번역전략의 적절성 문제\*

정 일 영 · 정 의 상  
(경희대 · 조선대)

### 1. 서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세계적인 박람회 및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 곳으로, 이 지역의 관광안내정보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sup>1)</sup>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관광정보를 얻게 되는 일본인 관광객들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순수관광

---

\* 본 논문은 2010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2010.3.17일자 전라남도 도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0년부터 3년간을 ‘2010~2012 旅遊/悠遊 전남의 해’로 지정하여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다.

을 목적으로 입국한 일본인 관광객의 여행정보 입수경로로 인터넷을 통해서라는 응답수가 2008년에는 전체의 51.5%, 2009년에는 5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남도코리아(南道코리아)<sup>3)</sup>’는 광주·전남지역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재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2006년 2월에 구축한 일본어 웹사이트로, [남도코리아에 관하여, 관광정보, 축제, 숙박, 음식]과 [베스트10 관광명소]라는 6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콘텐츠의 대부분은 남도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을 일본어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언어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남도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고 있는 [베스트10 관광명소]와 [관광정보]에 실려 있는 일본어 안내문의 문화소<sup>4)</sup>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안내문이 문화소 번역의 부등성 극복을 위해 사용한 번역전략<sup>5)</sup>과

2)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일본) (2009: 188).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거주국별 한국 여행정보 입수경로(2010: 87)

3) 일본어 사이트와 우리말 사이트는 각기 아래를 참조하였고, 이하에서는 ‘남도코리아(南道코리아)’를 ‘남도코리아’로만 명기함.

<http://www.namdokorea.com/jp/main.jsp>, <http://www.namdokorea.com>.

4) 번역과 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이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1990년대부터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문화 관련 어휘를 이근희(2005: 254)는 culture-bound 어휘로, 김효중은 문화소로 부르는 등 학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所與性を 일컫는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이라는 김효중(2004: 37)의 개념 정의를 문화소라 칭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상기에 명시한 정의를 바탕으로 문화소의 어휘범주를 출발어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특정인물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와 종교, 문화, 역사적 사건 등의 특정문화 관련어휘로 한정하고, ‘남도코리아’ 안내문에서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 42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어휘는 사례문의 번호와 상관없이 전체 사례문에서 밑줄을 쳐서 표시한 모든 어휘를 말한다.

5) 번역의 부등성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은 다수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들 중, 한일 번역의 문화소 부등성 극복 전략으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과 상위어 전략, 문화대체어 전략, 차용어 전략, 생략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보다 나은 번역전략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2. 문제 제기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출발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세계관 등의 언어표현 형식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도착어 언어의 표현 형식으로 바꾸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행위이다. 이처럼 번역을 단순한 언어기호의 전환이 아닌 문화전이라고 볼 때, 번역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이런 이유에서 번역자는 출발어와 도착어 뿐만 아니라 두 언어권의 문화에도 정통해야 최적의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문제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 본고의 분석 자료중의 일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으로서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있으며 시, 서, 화에 능통하여 5절이라 일컬어지고 있다.<sup>7)</sup>  
 韓国茶道を中興させたタソンとして今まで仰ぎ敬まれ、詩、書、画に精通し、5寺と称えられている。(초의선사 유적지)

사례 1)은 번역자가 우리말 다성을 가타카나로만 음차 번역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번역이 되어버렸고, 다음으로 우리말 텍스트의 5절이라는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한 채<sup>8)</sup> 절을 [寺]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말의 다성은 “다성(茶聖) 초의와 서성(書聖) 추사와의 교유는 각별하여 평생을 통해 지속되었는데”<sup>9)</sup>

전략 등의 번역전략을 참고로 한다.

- 6) 김효중(65-72.)  
 7) 본고에서 인용하는 사례문의 글꼴은 학회의 지침에 따라 ‘남도코리아’ 원문의 글꼴과 각기 다름을 밝혀둔다.  
 8) 문화번역이론의 목적이론에서는 실제 번역과정에서 번역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실하게 작성된 원어텍스트를 새로 다시 써도 무방하다.(김효중: 79-84)

와 같이, 일본어의 경우는 “茶道千家流の始祖となった茶聖千利休”<sup>10)</sup>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휘이다. 또한 詩, 書, 畵에 능한 사람을 일컬어 한 일 양국에서는 삼절(三絶)이라는 어휘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번역자는 원문 텍스트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하고 번역상의 오류를 범했다. 이처럼 사례 1)의 두 어휘는 상응하는 일본어가 있음에도 잘못된 번역을 한 사례이지만, 아래의 두 사례에 사용된 주막과 선비는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의 사용이 불가능한 문화소 번역의 좋은 예이다.

2) 처음에는 강진읍 동문밖 주막과 고성사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 집 등에서 8년을 보낸 후

初めには康津邑の郊外の居酒屋と高声寺の宝恩山房、弟子の李ハクレ家などで8年を送った後(다산초당)

3) 강진 땅에 자리한 선비풍의 신라 고찰로서

康津の地に位置したソンビ風の新羅の古刹として(무위사)

사례 2)의 우리말 “주막”은 술과 밥을 팔면서 나그네를 머물게 했던 집으로 술뿐만 아니라 숙식제공이 가능했던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 생활을 시작했던 곳을 나타내주고 있으나, 번역자가 선택한 어휘인 [居酒屋]는 [酒類とそれに伴う簡単な料理を提供する飲食店である]에서 알 수 있듯이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불과하다. [居酒屋]로 번역된 문장을 통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주막이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를 제대로 생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경우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旅籠屋]와 같은 일본어를 사용한다면 읽는 이로 하여금 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3)의 “선비풍의 신라 고찰”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인 선비가 풍기는 모습처럼 무위사도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단아하게 지어진 사찰

9) 명원문화재단, 한국의 다인들, 초의선사. <http://www.myungwon.org>를 참조.

10) <http://kajipon.sakura.ne.jp/kt/haka-topic21.html>을 참조.

임을 연상시켜주는 우리말 문장이다. 사례에서는 선비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ゾンビ]라고 음차번역만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韓国語で「ゾンビ」という言葉はありますか？意味は亡霊ですか？”<sup>11)</sup>. 이는 일본 웹사이트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으로, [ゾンビ]가 [ゾンビ]의 오류가 아닌지를 연상시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출발어문화의 특수성을 보존하고자할 때는 [ゾンビ(朝鮮時代の社会に儒教的理念を具現しようとした階層で、高潔な人柄を持った人に対する呼称)]와 같이 음차번역을 통해 차용어를 사용하고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전략이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남도코리아’의 안내문에는 남도지역의 국보급 문화재, 지방문화재,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 지명, 건물명, 종교(불교와 유교)관련 어휘, 건조물 등이 상당수 소개되어 있다. 3장에서는 ‘남도코리아’의 일본어 안내문에 나타난 인명, 지명, 건축 및 건조물명과 같은 고유명사관련 어휘와 불교와 유교, 전통건축, 역사관련 어휘를 번역함에 있어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들 문화소 번역의 부등성 극복을 위한 보다 나은 번역전략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 3. 사례 유형별 문제점 분석

‘남도코리아’에는 청자도요지를 비롯하여 사찰, 정원, 전시관, 성, 드라마 세트장 등 다양한 문화재를 소개하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 일본어 안내문의 문화소 번역의 문제점을 고유명사 관련 문화소 번역과 특정문화관련 문화소 번역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3.1 고유명사 관련 문화소의 번역 사례

본 절에서 다루게 될 고유명사로는 역사적 인물,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지명, 건조물명으로, 이는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익숙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어휘들이다.

11) [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28125656](http://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28125656)을 참조.

## 3.1.1 인명 관련 문화소의 번역

‘남도코리아’의 안내문에서 인명 관련 문화소 번역에 사용한 전략으로는 한자로만 번역하는 방법, 성은 한자로 이름은 가타카나로 번역하는 방법, 성명 모두를 가타카나로 음차번역하고 한자를 명기하는 방법 등 다양하다.

4) 송강 정철(松江 鄭澈)의 『소쇄원제초정(瀟灑園題草亭)』에는 자기가 태어나던 해(1536)에 소쇄원이 조영된 것이라 하였다. 1542년에는 송순이 양산보의 소쇄원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다. 소쇄원은 양산보 개인이 꾸몄다기보다는 당나라 이덕유(李德裕)가 경영하던 평천장(平泉莊)과 이를 모방한 송순, 김인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松江鄭澈の『瀟灑園題草亭』には自分が生まれた日(1536)に瀟灑園が造営されたものだという。1542年には松の新芽が梁山甫の瀟灑園を助けたという記録もある。瀟灑園は梁山甫個人が造ったというよりは唐のイドックユ(李德裕)が経営した平泉莊とこれを模倣した松成、金麟厚などの影響を大きく受けたはずだ。(소쇄원)

5) 조선태조6년(1397) 왜구가 침입하자 이 고장 출신 양해공 김빈길 장군의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아 방어에 나섰고 300년후 인조4년(1626) 충민공 임경업 장군이 33세 때 낙안군수로 부임하여 현재의 석성으로 중수했다.) 朝鮮太祖6年(1397)倭寇が侵入するところの故郷出身の梁ヒェゴン、金ビンギル將軍が義兵を起こして土城を積んで防禦に出、300年後、仁祖4年(1626)忠愍公林慶業將軍が33才時樂安郡主に赴任して現在の石の城に造った。(낙안읍성)

사례 4)의 소쇄원은 양산보가 지었다고 하는 정원으로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킨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라고 한다. 상기의 사례에 나타난 인명의 번역을 보면, 송강 정철(정철의 경우는 號도), 양산보, 김인후는 성명을 한자로만, 당나라 사람인 이덕유는 성명을 가타카나로 음차번역을 하고 한자명을 괄호 처리하였으며, 조선시대 명종 때 문신이며 말년에 담양에 내려와 석림정사와 면양정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는 송순<sup>12)</sup>의 경우는 번역자가 출발어 텍스트의 뜻하

12)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송순의 한자명은 宋純이다. 상기 사례의 두 번째 문장에서서는 소나무의 새 순이 양산보를 도왔다는 어처구니없는 번역으로 세 번째 문장에서는 동일 인물을 소나무 松에 개 戌로 번역하여 이해불능의 번역문을 만들어 놓았다.

는 바를 잘못 이해하여 첫 번째 이름은 [松の新芽]로, 두 번째 이름은 [松茂]로 번역을 해 놓았다. 세 문장에 불과한 안내문에서 다섯 사람의 이름에 대한 번역 방법이 각기 달라 이 안내문을 읽는 일본 네티즌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례 5)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빈길 장군과 임경업 장군 두 명이지만 번역문에는 마치 세 명의 장군에 대한 설명이 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양혜공 김빈길 장군에 대한 번역 때문이다. 김빈길 장군의 號는 양혜(襄惠)로, 남자의 성이나 號에 이어져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인 公이 접속되어 양혜공(襄惠公) 김빈길 장군이 된다. 그러나 번역자는 이 두 어휘가 두 명의 장군이라고 잘못 인식하여 두 어휘 사이에 쉼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梁ヒェコン]으로 옮겨 놓아 마치 성이 梁씨이고 이름이 혜공인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 같은 번역문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등장 인물인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는 号와 성명을 모두 한자로 번역한 반면, 별로 귀에 익지 않은 김빈길 장군의 경우에는 한자와 가타가나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남도코리아'의 일본어 안내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번역자가 일관된 번역전략 없이 안일한 번역 자세로 번역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번역자에게 익숙한 인물이거나 조사가 비교적 쉬운 인물은 號까지 한자로 번역하고, 익숙하지 않은 인물로 조사가 어려운 인물은 성은 한자로 이름은 가타카나로 번역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번역자의 이러한 자세로 번역된 안내문은 도착어 문화권의 일본 네티즌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문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sup>13)</sup> 제10항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성명은 가타카나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가운뎃점으로 구별하여 적고 성과 이름은 연음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적인 관용에 따라 연음

13) 『교과서 편수자료 II-1, 인문사회과학편(2007: 80)』(교과서 편수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 국어의 가나문자표기법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모든 관광안내정보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일본어 안내문이 이 원칙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으로, 현재로서는 전국의 관광안내문의 일관성 있는 번역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도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상기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번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발어 텍스트에 명기된 모든 인명은 한자 사용 없이 가타카나로 음차 번역하되 성과 이름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찍어 구별하게 하고, 號는 이해에 어려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는 번역전략을 사용한다면 일관성이 있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안내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번역전략은 도리어 문화권의 일본 네티즌들에게 출발어 문화권의 역사적 인물의 성명을 발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갖게 될 것이다.<sup>14)</sup>

### 3.1.2 지명 및 건조물명 관련 문화소의 번역 사례

‘남도코리아’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한 지명과 사찰이나 탑 등의 건조물명의 번역 방법을 보면, 인명 관련 문화소 번역 방법과 특별히 다를 게 없으나, 이는 필요에 따라 의미전달을 위해 설명을 덧붙인 음차번역, 음차번역을 한 후에 괄호를 이용하여 의미전달을 할 수 있는 어휘나 설명문을 삽입하는 번역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6)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 珍島郡義新面사천리<sup>15)</sup> (운림산방)
-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 和順郡道岩面대초리 (운주사)
-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 莞島郡郡外面仏目里 (해신장보고 드라마세트장)
- 청해진포구마을 / 淸海鎭浦口村 (해신장보고 드라마세트장)
- 완도읍 대신리 소세포 오픈세트장 / 제주 성산 섭지코지 / 강원도 정동진 (완도)
- 莞島邑大新里セソ浦オープンセット場/ 濟州城山ソブジ峰/ 江源道正東陳<sup>16)</sup>

14) 이와 같은 전략에 의거하여 상기 사례 4)와 5)를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1) チョン・チョル ソン・스신 ヤン・산보 이・트럭쿠 김·인프  
 사례 2) 김 빈글 이·키온오프

15) 사천리의 경우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혼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6) [セソ浦]는 소세포의 잘못으로 [ソセ]로 바로 잡아야하고 [ソブジ峰]는 섭지코지를 말하는 것으로 코지는 바다나 호수가 가늘게 뻗어있는 육지의 끝 부분을 나타내는 제주 방언으로 이를 [峰]로 번역함은 오류이다. 소세포와 섭지코지는 행정구역명이 아닌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음차번역을 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괄호에 삽입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ソセボ(浦)]와 [ソブジコジ(岬)]로 번역하는 것이



사례6)과 같은 현상은 '남도코리아'의 관광명소나 유적지의 위치를 설명하는 일본어 안내문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엔 행정구역 단위인 [里] 앞의 지명만을 가타카나로 표기하였고, 세 번째 사례인 [莞島郡郡外面仏目里]는 지명과 행정단위 모두를 한자로 표기하였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 행정단위인 [郡]과 지명인 [郡外]의 [郡]이라는 한자가 겹쳐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이 되었다.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7항(2007:78)에 따르면, 행정구역명, 역명, 도로명 등에서 접미요소는 일본의 한자 표기법에 따라 한자로 적고, 행정구역 앞에 오는 지명은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상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 [チンド郡ウイシン面サクション里]와 [ファスン郡トアム面テチョ里]로, 세 번째 사례는 [ワンド郡クン웨면ブル Mok 里]로 고쳐 써야 한다.<sup>17)</sup> 네 번째 사례인 청해진 포구마을은 실제 마을이 아니고 드라마 세트장에 설치해 놓은 마을 이름으로 이는 고유명사화해야 할 어휘이다. 이를 상기의 사례에서와 같이 [村]로 번역하게 되면, 일본의 행정구역의 단위인 [村]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출발어 문화권의 고유어인 [マウル]를 사용하여 [チョンヘ진보그마울]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앞에 오는 지명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모든 행정구역 단위는 한자로 표기하도록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읍, 면, 동, 리와 같은 행정구역 단위와 고유명사화 해야 할 지명은 한자 사용 없이 가타카나로 표기하도록 하고, 필요

---

바람직하다. 또한 한양(漢陽)의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나무터가 있는 부락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갖고 있는 정동진의 진은 늘어놓을 陳이 아닌 나무터를 의미하는 津을 써야 한다. 이들 모두는 행정구역명과 다르므로 음차번역을 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괄호에 삽입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ソセ보(浦)]와 [ソ즈코지(岬), チョンドン진(津)]로 번역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한 번역이라 하겠다.

- 17) 일본의 행정구역 체계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 어휘가 존재하여 한일번역 시 선불리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물론 일본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읍, 면, 동(리)에 해당하는 문화대체어로 일본의 [町、村、大字] 등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행정구역 명칭까지 도착어문화권의 문화대체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에 따라 그것이 뜻하는 바를 괄호를 사용하여 설명해 주는 번역방법이 가독성을 높이는 번역전략이라고 생각한다.<sup>18)</sup>

7) 운주사는 화순읍에서 서남쪽으로 약 2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태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개천사, 서쪽에는 운주사가 자리하고 있다. 원형다층석탑은 바닥에서 탑 꼭대기까지 둥근 모습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6층이나 그 위로 몇 층이 더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연화탑, 떡탑 등의 별칭이 있다. 雲住寺は和順邑から西南の方に約26km地点に位地しており、千態山<sup>19)</sup>を中心に東にはケチョン寺の西の方には雲住寺が位置している。円形多層石塔は底から塔のてっぺんまで円形をしており、現在は6階だが、その上に何段がもっとあったのかが気になる。連火塔<sup>20)</sup>、トック塔などの別称がある。(운주사)

사례7)은 고려시대에 지어졌다는 사찰인 운주사에 대한 안내문으로, 운주사와 연화탑은 한자를 사용하여 [雲住寺, 連火塔]로, 개천사와 떡탑은 가타카나와 한자를 사용하여 [ケチョン寺, トック塔]로 번역하였다.

가나 문자 표기법 제9항(2007:79)에는 자연 지물의 명칭 중에서 보통명사 부분은 한자로 적되 우리말에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寺, 島, 海 등과 같은 보통명사는 발음대로 적으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상기의 운주사와 개천사를 일본어로 표기한다면 [ウンジュサ(雲住寺), ケチョンサ(開天寺)]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형다층석탑의 별칭인 연화탑은 기단부위가 16장의 연꽃잎을 장식한 돌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떡탑<sup>21)</sup>은 기단 위의 6층의 옥개석이 마치 시루떡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생긴 이름이다. 이들 별칭은 한자로 번역하기보다는 문화의 특수성을 보존하고자 할 때 유용한 번역전략인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전략을 활용하여 연화탑은 [塔の

18)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 이름 사이에 가운뎃점을 찍어 구별하는 것과 같이 지명과 행정구역명 사이에 일정한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구별하는 방법을 모색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千態山은 天台山의 오류이다.

20) 連火塔은 蓮花塔의 오류이다.

21) 원형다층석탑은 생긴 모양 때문에 떡탑 외에도 도넛탑, 호떡탑 등의 별칭도 있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2006: 109)

基壇部が蓮の花を連想させる形をしているのでヨンファ탑(塔)로, 떡담은 [鏡餅のような形をしているのでトック탑(塔)]라고 번역한다면 읽는 이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높여주는 번역이 될 것이다.

### 3.2 특정문화 관련 문화소의 번역

본 절에서 말하는 특정문화 관련 문화소란 출발어 문화권의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도착어 문화권의 일본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또는 유사하지만 그 쓰임이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종교문화와 건축문화 관련 어휘와 역사적 사실과 관련 있는 어휘를 말한다. 이는 고유명사의 번역에 사용될 수 있는 번역전략과 달리, 보다 다양한 번역전략이 사용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본다.

#### 3.2.1 종교 관련 문화소의 번역

‘남도코리아’의 관광명소에는 불교와 유교에 관련된 유적지가 전체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본어 안내문의 내용 중에는 이들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상당수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안내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 관련 어휘 중 일부 사례를 들어 문화소 번역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8) 당시 귀족불교에 대한 서민불교 운동이 한창이던 1236년에 요세가 백련결사(白蓮結社)를 일으켰는데 1천여 명의 주민과 도반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当時貴族仏教に対する庶民仏教運動が盛んであった1236年に了世が白蓮結社を起こしたが、1千余人の住民と、ドバン300余人が参加したと言う。(백련사)

사례8)은 지방유형문화재 136호인 백련사에 관한 안내문으로 번역문에 사용된 [ドバン]은 우리말에서 행자생활을 같이 했거나 수행이나 공부를 같이 한 승려나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벗, 깨달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도반을 말한다. 번역자가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어휘를 찾지 못해서 인지 아니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음차번역만 하는 차용

어전락을 사용함으로써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문이 되었다. 사례5)에 사용된 [ドバン]은 백련결사에 1천여 명의 주민과 함께 300여 명의 승려도 참가했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와 같은 경우 상위어 전락을 사용하여 [僧侶]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이 절의 불상 뒤 탕화로 그려진 ‘수월관음도’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このお寺の仏壇の後ろの幀画に描かれた‘水月観音も’は芸術的価値が高い作品として評価を受けているし(무위사)

사례9)는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탕화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것의 어원은 티베트의 Tanka로 한자로는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그림족자 정(幀)을 써서 幀畫로 쓰고, 읽기는 탕화로 읽는다. 출발어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이나 삼베에다 불보살의 모습이나 경전내용을 그려 벽 등에 걸 수 있게 만든 그림을 佛畫와 구별하여 탕화라고 하지만, 이는 본디 일본의 불교문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이를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위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불교이념을 가시화한 그림을 통칭하는 용어인 [仏画]로 번역을 해준다면 안내문을 읽는 일본인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22)</sup>

10)1990년부터 중창사업이 전개되면서 선원, 요사채<sup>23)</sup>, 일주문, 주지실, 화장실 등의 건물이 대원사 경내에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1990年から再創事業が展開され、禪院、ヨサチエ、一周門、主持室、トイレなどの建物が大源寺境内に新しく立ち入っている。(대원사)

사례10)은 대원사 경내의 건축 구조물의 구성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첫 번째

22) 탕화는 실제적으로 일본불교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만, 티베트 불교문화를 설명할 때는 가타카나 ㄸ力로 표기하여 사용하기도 하므로 문화대체어전락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3) 사례에 쓰인 우리말 요사채는 요사채의 오류이다.

문제가 되는 요사채란 사찰 경내의 전각과 문 등을 제외한 스님들의 생활공간을 말하며, 이때 요사채의 채는 집채를 세는 단위인 棟을 뜻한다. 번역자는 도반의 경우에서처럼 요사채가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음차번역만 하는 차용어 전략을 사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번역이 되어 버렸다. 이는 출발어 문화권이나 도착어 문화권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어휘이므로,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전략을 사용하여 [お坊さんたちの生活空間であるヨサチェ]로 번역하는 방법과 양국의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에서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어휘인 [寮舍(僧侶の寄宿する家)]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 [寮舍]에는 [学生や従業員などが寄宿する建物]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번역 전략이 보다 나은 번역 방법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주문으로, 안내문의 一周門은 一柱門 오류이다. 번역자는 우리말의 일주문을 한자로만 바꾸어 놓는 단어 대 단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출발어 문화권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一柱門<sup>24)</sup>은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문으로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뜻하지만, 도착어 문화권인 일본어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가 없으므로, 등가를 확대·적용할 때 사용하는 번역 방법인 문화대체어 번역 전략<sup>25)</sup>을 사용하여, [寺院の正門]의 뜻을 나타내는 [山門]을 사용하여 번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번역은 주지실로 이는 하나의 사찰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뜻한다. 출발어 문화권에서의 주지가 뜻하는 바를 나타내는 도착어 문화권의 어휘로는 [住持, 住職, 方丈] 등이 있어 상기의 사례에서 [住持室]<sup>26)</sup>로 번역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도착어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친숙하게 사용되는 어휘는 [寺院内にある住職の居所]를 나타내는 [方丈]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엔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方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4) <http://blog.naver.com/venuslv?Redirect=Log&logNo=12295352>

25) 김도훈(2006: 41)에서 재인용.

26) 번역된 안내문의 主持는 住持의 오류이다.

11)보성향교는 태조 6년(1397년)에 남문밖 귀주산하(貴珠山下)에 주봉리(珠峰里) 구계동(九溪洞)에 창건하였으나 언젠가 수고(社倉)의 서쪽에 이군하였다.

宝城郷校は太祖6年(1397年)に南門の外、貴珠山下に珠峰里九溪洞に創建したが、いつしか社倉の西の方に移建した。(보성향교)

사례11)의 [郷校]는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한자 어휘를 사용하지만, 조선시대의 향교는 문묘나 명륜당 같은 곳을 두고 공자와 같은 선철이나 선현을 제사지내던 곳을, 일본의 [郷校]는 江戸시대부터 明治시대 초기에 있던 학교를 뜻한다. [郷校]와 같이 한일 양국에서 동일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朝鮮時代、孔子の靈を祀ったり、地方の人々の教育のため国で建てた地方教育機関であるヒャンギョ(郷校)]처럼 도입부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음차번역을 통한 차용어 전략을 사용한다면 이후 동일 텍스트 내에 반복되는 어휘는 음차번역만으로도 가독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출발어 문화권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번역전략이 될 수 있다.

12)충민사를 건립한 후 우부승지였던 김상용이 선조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청하여, 선조가 직접 이름을 짓고 그것을 새긴 현판을 하사함으로써 이 충무공과 관련된 최초의 사당이 되었다.

忠愍寺を建てると右副承旨金尚容が王にこの祠宇の名前を作ってくれと言って懇請して宣祖が直接名前を作ってそれを刻んだ懸板を受けることで李忠武公と関わる最初の靈廟になったが、(충민사)

경렬사는 고려말의 용장 정지 장군(鄭地 將軍)을 모신 곳으로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운 정지(1347-1391)장군을 배향하고 있는 사우로

景烈寺は高麗末の勇將、鄭地將軍(チョンジ將軍)を祭った所で倭寇撃退に大きい功を立てた鄭地(1347-1391)將軍の位牌を祭っている祠宇で(광주 경렬사)

사례12)의 충민사와 경렬사는 사찰이 아닌 사당이지만, 번역문에는 모두 절[寺]로 잘못 번역하였고, 사당 혹은 사우를 [靈廟] 또는 [祠宇]로 번역하고 있다. 사례11)의 향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우를 [祠宇]라고 단어 대 단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의미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본어의 [祠宇]는 일본의 [神道]와 관련이 있는 어휘로, [神道教派に属し、主神を奉斎し、神道の教義の宣布、儀式の執行を目的とする施設]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우는 유교문화의 확산과 함께 고려시대 전래된 주자가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선조나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 두고 해마다 수차에 걸쳐 제향을 올리는 장소를 말한다. 이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뜻하는 사당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어휘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당은 사대부가를 비롯한 일반 민가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의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우리말의 사우는 유교문화와 관련된 어휘인데 반해 일본어의 [祠宇]는 [神道]와 관련된 어휘로 이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오해의 여지를 남기는 번역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번역자가 여러 가지 번역전략 중, 문화대체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先祖の靈や貴人の靈を祭っておく建物]의 뜻을 나타내는 [御靈屋]나 [祖先の靈を祭った屋舎]의 뜻을 나타내는 [靈廟]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면 가독성을 높여주는 번역문이 될 것이다.

### 3.2.2 건축 관련 문화소의 번역

‘남도코리아’의 안내문에는 출발어 문화권의 한국인들에게도 이해나 설명이 어려운 전통건축 관련 어휘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전통건축과 관련된 문화소 번역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13)소쇄원은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은사인 정암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기묘사화로 능주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출세에 뜻을 버리고 자연속에서 숨어 살기 위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다. 瀟灑園は梁山甫、(1503~1557)が恩師である静庵趙光祖(1482~1519)が己卯士禍で綾州に流罪されて世を去るようになると出世への志を捨てて自然の中に隠れて暮すために作った別墅庭園(ピョルスジョンウォン)である。(소쇄원)

우리말 별서의 사전적 의미는 농장이나 들이 있는 부근에 한적하게 따로 지은 집으로 별장과 비슷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점이 일반 별장과 다르며, 일

본어의 [別墅]는 [下屋敷]<sup>27)</sup> 또는 [別荘]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로 우리말의 별서와 일본어가 뜻하는 [別墅]는 동일한 한자 어휘이지만 그 뜻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다. 특히 사례 13)에서처럼 별서에 정원이 덧붙여져 합성어가 된 별서정원은 자연귀의(自然歸依)와 은일사상(隱逸思想)이 빚어낸 결과로 만들어진 정원으로, 세속의 벼슬이나 당파싸움에 야합(野合)하지 않고 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숙한 곳에 따로 집을 지어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정원을 뜻한다. 또한 상기의 사례 13)은 번역 상으로 문법적인 문제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어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말의 별서정원이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한자(別墅庭園)와 가나(ピョルソジョンウォン)로 병행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도착어 문화권의 일본 네티즌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번역을 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어휘 중에는 동일한 한자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한자 어휘가 뜻하는 의미영역이 같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기의 사례와 같이 설명문을 삽입하여 번역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번역전략이라 하겠다. 그러나 도착어 문화권의 네티즌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문 다음에 덧붙인 別墅庭園(ピョルソジョンウォン)과 같은 어려운 한자 어휘를 사용하기 보다는 상위어 전략을 사용하여 [庭園]이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여 주는 번역이라고 하겠다.

14)계월당(霽月堂)은 ‘비개인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뜻의 주인을 위한 집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며, 광풍각(光風閣)은 ‘비개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의 손님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1614년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역시 팔작지붕 한식이다. 광풍각의 대하(台下)에는 석가산(石仮山)이 있다. 이 계류구역은 유락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霽月堂は‘雨が晴れた空のさわやかな月’という意味の主人のための家で、正面3間、側面1間の八作屋根の建物で、光風閣は‘雨が上がった後、日が昇り、吹く清涼な風’という意味のお客さんのための広間で1614年修理した正面3間、側面3間のやはり八作屋根の韓式<sup>28)</sup>だ。光風閣の台下には石仮山が

27) 江戸における大名屋敷のうち、上屋敷に対する控屋敷。郊外などに設けた別邸。

28) 한국식이나 한국 고유의 양식이나 격식을 나타내는 [韓式]이라는 어휘는 우리말 사



ある。この溪流区域は遊樂空間としての機能を持っている。(소쇄원)

사례 14)는 소쇄원 내부에 있는 제월당과 광풍각의 크기와 지붕모양을 설명하는 안내문으로, 번역자는 우리가 전통건축의 크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정면, 측면, 칸을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하였으나, 이러한 번역문을 읽게 되는 도착어 문화권의 일본 네티즌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은 경우 번역자는 문화대체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間口, 奥行]<sup>30)</sup>나 [~間~面]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間口3間, 奥行1間]나 [3間2面]이라고 번역해 준다면 일본 네티즌들에게 친숙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번역은 전통가옥의 지붕 모양을 설명한 번역문으로 번역자는 이것 역시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가옥의 대표적인 지붕의 형태에는 건물의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형태인 맞배지붕과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있고 용마루와 추녀마루로 구성된 지붕인 우진각지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의 지붕인 팔작지붕이 있다. 상기 사례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팔작지붕은 도착어 문화권인 일본어에도 대체할 수 있는 [入母屋<sup>31)</sup>造り(の屋根)]라는 어휘가 존재하므로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출발어 문화권의 우리들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그러나 이를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한 것은 오류이다. 이를 바르게 번역하려면, [伝統的な韓國式]이나 [韓國の伝統的な建築様式]과 같은 부연설명이 필요하며,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入母屋]라고 번역한다면 굳이 [韓式]이라는 어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29) 정일영(2003: 85)

30) [間口]는 [土地や家屋などの全面の幅]를, [奥行]는 [家や地面などの表から奥までの距離]를 뜻한다.

31) 上部は切妻のように二方へ勾配を有し、下部は四注造りのように四方に勾配を有する屋根形。(広辞苑)

상기 사례의 마지막 문제는 정원 등에 돌을 쌓아서 조그마하게 만든 산을 뜻하는 석가산을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번역자가 [石仮山]<sup>32)</sup>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있으므로, 이것 역시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築山]<sup>33)</sup>라는 어휘를 사용한다면 일본 네티즌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2.3 역사 관련 문화소의 번역

우리의 역사는 일본과 미묘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들 번역 시, 어휘 선택에 있어 번역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임진왜란과 같이 일본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일본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역사 속의 사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휘를 번역자가 어떤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번역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번역 전략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15) 여주시 군자동 472번지에 위치한 진남관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해인 1599년

麗水市 君子洞472番地に位置した鎮南館は、文祿の役が終わった後年の1599年 (여수진남관)

임진왜란때 불타 없어진 것을

壬辰の乱の時、燃えて消失したものを(구례 화엄사)

호남지방의 유생들이 왜란 때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이들을 제향

湖南地方の儒生たちが倭乱の時の国のために忠節をつくした人々を祭享 (광주 포충사)

32) [丁若鏞が海岸の石を運んできて茶山草堂の横に池を作り、その周りに石を3段に積み上げて小さな山のようにあしらひ、本当の山よりも美しいと言われる蓮池石仮山]에서와 같이 석가산을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world.kbs.co.kr/japanese/program/program\\_touringkorea\\_detail.htm?No=88&font\\_size=11](http://world.kbs.co.kr/japanese/program/program_touringkorea_detail.htm?No=88&font_size=11)를 참조.

33) 庭園などに、山に見立てて土砂または石などを用いて築いたもの。

정유재란의 병화로 소실되자 선조 35년(1602년)에 새로이 중건하면서 망미봉(望美峰) 하록(下麓)인 현위치로 이관하였다.

丁酉災亂の兵禍で消失し、宣祖35年(1602年)に新たに再建しながら望美峰下麓の現位置に移建した。(보성향교)

사례 15)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한 일본어 번역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에 따라 선택된 어휘가 각기 다르다. 특히 '남도코리아'의 안내문에는 임진왜란·정유재란과 관련된 소개의 글이 많이 실려 있는데,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을 도착어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文祿の役] 또는 [壬辰の乱]으로, 1598년에 재차 일어난 정유재란을 [慶長の役]라고 한다. 이 때 일본어의 [役]는 [戦争]의 뜻을 나타내며 [文祿元年]과 [慶長2年]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전쟁을 아울러 [文祿·慶長の役]라고도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는 문화대체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文祿の役]와 [壬辰の乱]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사례는 단어 대 단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倭乱]이라고 번역하여 도착어 문화권의 네티즌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번역이 되었고, 네 번째 사례인 [丁酉災亂]은 [丁酉再乱]의 오류로 이는 번역자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네티즌들로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오역이 되어 버렸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출발어 문화권의 번역자의 입장으로서 이들 어휘를 번역함에 있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서울의 고궁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 있는 문화유적지에는 이 두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파괴된 문화재가 산재해있으나 상기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두 어휘의 번역에 사용된 어휘는 각기 달라 일관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 사례에서와 같은 번역만으로는 출발어 문화권의 우리가 입은 피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식이 남게 됨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우 부연설명을 덧붙인 문화대체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임진왜란은 [豊臣秀吉による第一次朝鮮侵略戦争である1592年の文祿の役]로, 정유재란은 [豊臣秀吉による第二次朝鮮侵略戦争である1597年の慶長の役]로 번역하여 준다면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한 표현과 도착어 문화권의 네티즌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어휘를 사용하게 되어 보다 나은 번역이 되지 않을까 한다.<sup>34)</sup> 이외에도 왜구(倭寇), 왜군(倭軍), 왜적(倭敵), 일제(日帝),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해방(解放)과 같은 어휘들의 번역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역시 출발어 문화권의 우리들 입장에서 번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대체어 전략을 사용하여 도착어 문화권에서 익숙한 어휘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16)대원사는 6.25전까지만 하여도 극락전을 비롯하여 천불전, 내원, 상원암, 호적암, 남암등이 있어  
大源寺は6.25動乱前までは極楽殿を含めて千仏殿、内院、上院庵、虎蹟庵、ナムアムドンが あって(보성군 대원사)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호문과 사천왕문을 빼고 20 여 동의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다.

宝林寺は、1950年朝鮮戦争当時、外護門、四天王門を除いて20余棟の建物が皆燃えてしまった。(장흥군 보림사)

그나마 한국전쟁때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절에 딸려 있던 건물 다섯 채가 불에 타버렸고,

しかし6・25戦争の時には大雄殿を含めてお寺のなかにあった建物五つが火に燃えてしまったし、(곡성군 태안사)

출발어 문화권에서의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공식 명칭은 6.25전쟁이지만, 우리는 이를 한국전쟁, 한국동란, 6.25동란, 6.25사변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출발어 문화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6.25動乱]으로, 두 번째 사례에서는 도착어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휘인 [朝鮮戦争]라는 문화대체어 번역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출발어 텍스트의 한국전쟁을 [6.25戦争]라고 번역하여 출발어 문화권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는 일본 네티즌들에게는 의미 불명의 번역이 되어버렸다. 일반적으로 도착어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이를 [朝鮮

34) 출발어 문화권과 도착어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병기하여 壬辰倭乱(文祿の役)와 같은 번역을 하는 것도 번역의 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戦争]라고 부르고 있어, [6.25動亂]이나 [6.25戦争]라는 어휘는 일본 네티즌들에게는 무척 생소하여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어휘가 될 것이다. 문화대체어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朝鮮戦争]라고 번역하는 것도 바람직한 번역 전략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근간에는 출발어 문화권인 우리 입장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일 번역 시 [韓國戦争]라는 어휘를 번역어로 선정하여 일관성 있는 번역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번역 전략이 아닐까 한다.<sup>35)</sup>

#### 4. 결론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남도지역의 관광문화포털 '남도코리아'의 일본어 안내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고, 첫 결과물로 태(Voice)관련 표현의 오류분석을 발표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도코리아'의 일본어 안내문의 언어 내외적인 문제들 중, 문화관련 어휘인 문화소 번역 상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들 안내문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문화소를 번역할 때 어떤 번역전략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찰 분석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고유명사관련 문화소 번역의 경우에는 55.6%가 우리말을 한자로만 바꾸어 쓰는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44.4%가 가나와 한자를 절충한 전략을 사용하였고, 특정문화 관련 문화소 번역의 경우에는 58.3%가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20.8%가 문화대체어 전략을, 16.7%가 음차번역을 사용하였고, 설명을 덧붙인 음차번역은 4.2%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남도코리아'의 안내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우리말과 일본어의 어순이 유사하고 동일 한자문화권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에 자리 잡은 일본제 한자어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35) 서구권이 사용하는 'Korean War'의 번역어에 영향을 받은 때문인지 6.25전쟁을 근간에는 메스컴 등에서도 '한국전쟁'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한일번역 시 문화소 번역의 부등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첫째, 인명,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는 국어의 가나문자표기법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삼아 한자 사용 없이 가타카나로 음차번역을 하여 일관성 있는 번역이 되도록 하며, 건조물명과 같이 그 생긴 유래를 설명해야 할 경우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전략을 사용한다. 둘째, 특정문화 관련 문화소의 경우, 우리말을 한자로만 바꾸는 단어 대 단어 번역전략을 지양하고,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할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인 상위어 전략이나,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친숙함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대체어 전략, 문화의 특수성을 보존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전략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번역한다면 번역투의 양산을 막고 가독성이 높은 번역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과서 편수자료II-1, 인문사회과학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7(2): 41.
- 김봉열 (1994) 『韓國의 建築 (傳統建築編)』, 서울: 공간사.
- 김왕직 (2007)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파주: 동녘.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 사상.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서울: 한국문화사.
- 이 참 (2009)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일본)』, 한국관광공사.
- 정갑영 (2010)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일영 (2003) 「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4(1): 85.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2006) 『답사여행의 길잡이5 전남』, 파주: 돌베개.
- 金奉烈 (1991) 『韓國の建築(傳統建築編)』, 京都, 学芸出版社,

[Abstract]

**The Adequacy of Translation Strategies used for  
Cultural Elements in ‘Namdo Korea’  
— Gwangju and Jeonnam’s Tourism and Culture Portal**

Chung, Il-Young · Jung, Eui-Sang  
(Kyung Hee Univ. · Chosun Univ.)

The Internet has become a great source of tourist information today along with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local online travel guides or tourist information website is designed to provide prospective visitors with accurate and high quality information about local destinations as well as to enhance positive images of destinations and tourist satisfaction. Ultimately, an official travel information websi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Likewise, ‘Namdo Korea’ is an official website which was created in February, 2006 in order to furnish both Korean and foreign visitors with necessary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long history and natural tourist attractions in the areas of Gwangju and Jeonnam. However, after an ext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tourist information in Japanese posted on the website ‘Namdo Korea’ over a long period of time,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 translation. Among them, particularly, cultural equivalence turns out to be the most serious problem. Thus, in this study, not only do we examine the translation strategies translators used to address the complicated challenge of achieving equivalence in translating cultural elements from Korean to Japanese; but we also seek more effective strategies and methods to make better tourist guides and information in Japanese on the website ‘Namdo Korea’.

▶ Key Words: Gwangju and Jeonnam's Tourism and Culture Portal, Namdo Korea  
Cultural elements, Translation strategy, Asymmetry of cultural  
elements, Cultural substitution

정일영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sophi@khu.ac.kr

관심분야: 일본어학, 번역학

정의상(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일본어과 부교수

jeuis62@daum.net

관심분야: 일본어학,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0년 12월 31일

심사완료일: 2011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03월 11일